

또한 태국은 사회에 대한 환원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핵으로 하는 산업협력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지측과의 20년에 걸쳐서 육성된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1989년에는 日系の 가전 메이커로써 처음으로 주식상장도 실시하였다.

경영면, 제조면에서, 어떤 일정한 현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SUE의 전신은 1959년 현지자본으로 설립된 Universal전기인데 삼정전기는 동사에 냉장고 제조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다. 1969년에 합작계약을 체결하여 현사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주 생산품목은 냉장고, 컬러TV, 에어컨, 세탁기, 가스렌지, 냉동 show case, 냉장고용 압축기 등이다. 1991년도의 매출고는 약 200억엔이다. 이 매출고중에서 냉장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태국 국내의 생산대수에 대해서도 OEM을 포함하여 5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SUE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한 공장은 아니지만, 환경의 변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매출고의 13~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인재양성이 현재 태국에서는 커다란 문제의 하나인데, SUE는 당초부터 파트너의 방침으로써 인재양성에는 적극적이었다. 또한 인재육성은 설비의 자동화, 품질보증체제의 강화와 함께 분리할 수 없다. SUE는 예를 들면, 보스톤대학 MBA 코스와 일본의 생산기술연구소에서의 연간 20~30명을 파견, 일본의 명 사업부에서 스텝진 내사,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레벤 업을 도모하고 있다.

오랜 역사속에는 우수극절도 있었으나, 현지의 방법, 현지의 척도를 중요하게 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해 왔다. 그래서 처음으로 종업원의 업무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Give & Take가 아니라, "Give·Give & Take" 차세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다.

世界電子市場情報

일본 전자계산기 생산 전망

전자협·계산기계위원회에서 전자계산기 관련의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통산성 생산동태 통계조사를 베이스로 '92년의 생산 예측을 하였다.

또한 이 예측은, 지정통계인 통산성 생산동태통계조사를 베이스로 실시하였는데, 당협회의 자주통계에 기인한 각 시장위원회의 예측치와 회사수, 분류방법에 대하여 베이스를 달리하고 있다.

전자계산기관련업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국내(日本)의 경기후퇴 염려, 수요비중이 높았던 금융업계의 정보화 투자의 不調, 歐美의 컴퓨터 수요의 하락 등의 영향은 있지만, 명 기

업의 합리화·정보화 투자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한편, 기술환경을 살펴보면 Open System화 및 Network와 다운 사이징이 진전하여, 퍼스컴/워크스테이션의 수요확대가 계속되는 한편, Data Base 머신/Management 머신으로써의 범용기의 Need도 높아 여전히 강력한 수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자계산기 전체에서는 '91년의 실적전망은 전년대비 5.1%증인 6조 1,100억엔, '92년의 예측은 전년대비 7.1%증인 6조 5,440억엔으로 견조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산기 본체를 살펴보면, '92년의 실적예상은 전년대비 8.7%증인 2조 7,970억엔, '92년의

예측은 전년대비 9%증인 3조 1,610억엔으로 견조한 추이가 전망된다. 범용 컴퓨터는, 대형수요의 저성장이 소문이 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면에서 Data Base Servo 및 System 전체의 Menegement 분야 등에서의 새로운 역할이 확산될 것과, 각사 대형 범용컴퓨터의 신기종의 본격적 출하 및 관청, 민간수장에서의 대형프로젝트의 구체화의 요인에 의해 '91년 실적전망에서는 거의 '89년 레벨까지 회복되어, '92년에는 견고한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ffice Computer는, 전략정보시스템의 추진과 분산화 Network의 Needs 등 수요확대 요인이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92년에는 견고한 신장이 예상된다.

퍼스널 컴퓨터는 최근 수년동안 순조롭게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현지생산의 가속과 歐美공장의 저미에 의한 수출의 저하, 경기저미에 의한 국내 (일본)수요의 약간의 Impact 등은 있지만, 퍼스널계에서의 32bit 머신의 정착, 퍼스컴 LAN의 보급, 컬러 Notebook의 생산이 본격화되어 의해 '92년에는 순조로운 신장이 예상된다. 제어용 컴퓨터는, 하반기에 약간의 생산의 둔화가 보여지므로, 일년내내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에 머물렀다. 그러나 고성능화와 Open System화의 진전, 비즈니스분야에서

의 적용범위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91년 이후는 견고한 추이가 예상된다.

주변·단말장치에서는, '91년의 실적 전망은 전년대비 2%증인 3조 2,120억엔 '92년의 예측은 전년대비 5.3%증인 3조 3,830억엔으로 견조한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변장치는 최근 수년동안, 범용컴퓨터의 저성장도 있어서 성장의 둔화가 보여지지만, '91년 '92년에는 견조하게 추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장치는 최근, 범용컴퓨터의 저성장도 있어서 성장의 둔화가 보여지지만, 또한 단말장치는 범용단말장치가 퍼스컴/워크스테이션에 의한 치환 등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를 보였으나 전용단말장치는 금융무인화 대응 등에 의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전자계산기 생산예측 (단위:억엔)

	1990년	1991년	1992년
	실 적	실적예상	예 측
전자계산기본체	26,665	28,980	31,610
전 년 대 비 (%)	101.6	108.7	109.0
주변·단말장치	31,487	32,120	33,830
전 년 대 비 (%)	103.7	102.0	105.3
합 계	58,143	61,100	65,440
전 년 대 비 (%)	102.8	105.1	107.1

世界電子市場情報

콘덴서 Chip화 기술동향

콘덴서의 기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chip화 기술이다. 노이즈대책, 중고압화, 이상 전압 스트레스 대응, 고주파화, 음질향상 등, 콘덴서를 둘러싼 기술요구는 다종다양한데, 칩콘덴서는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여전히 소형, 박형화를 중심으로 고성능화의 요구가 활발하

다. 세라믹은 극소 Chip화, 알루미늄전해는 고체화, 탄탈은 소형·고신뢰성화, 필름은 소형·고내열화, Trimmer는 소형화 등 각각의 기술과제를 착실히 클리어 하면서, 기술향상도도모되고 있으며, Chip품종이 더욱 Variety화되고 있다.